

완주서 첫 오페라 공연 열린다

‘순정대학x밀당대학’ 31일 개최... 코지 판 투테 · 사랑의 묘약, 하나의 옴니버스 형식 재해석

완주에서 처음으로 오페라가 공연된다. 고양 오페라단과 완주군은 오는 31일 오후 7시 완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모차르트 오페라 ‘코지 판 투테’와 도니제티 오페라 ‘사랑의 묘약’ 두 작품을 하나의 옴니버스 형식으로 재해석해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의 제목은 ‘순정대학x밀당대학’이다. 대학 캠퍼스에서 벌어지는 유쾌한 연애소동을 통해 누구나 느껴봤을 사랑에 대한 다양한 감정을 다루며,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공감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2024 지역맞춤형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 사업으로 고양오페라단과 완주군이 무대, 공연, 홍보까지 모두 협력한다. 이번 공연에는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완주 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도 협력해 진행한다.

공연에 참여하는 출연진들은 모두 청년 예술가로 원유대, 김준엽, 김재율, 김수정, 박현아, 송수영, 임종안 등이다. 제작진에는 권영민(예술감독), 송우미(연출), 조두호(지휘), 김해경(음악코치), 김창영(번안), 권희수(기획), 홍아람(기획)에 참여했다.

해당 작품은 2023년 한국문화예술회연합회



완주에서 처음으로 오페라가 공연된다.

(사진 제공 = 고양오페라단)

방방곡곡 우수작품 선정작이며, 요즘 유행하는 연애 관찰 프로그램인 ‘환승연애’ ‘나는SOLO’ 등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남녀노소 모두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100% 우리말 오페라로 진행해 오페라 입문자들도 부담 없이 감상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대비되는 두 가지 스토리를 하나의 스토리로 창작해 만든 옴니버스 형식을 시도한 이번 공연에서는 모차르트와 도니제티 두 거장의 서

로 다른 스타일의 음악을 한 작품에서 즐길 수 있다. 원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대학교 캠퍼스 배경을 활용해 순정대학과 밀당대학을 오가면서 등장인물들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독특한 재미있는 오페라다.

이번 공연은 완주군에서 최초로 열리는 오페라로 완주문화예술을 통해 예매 가능하며, 문의는 고양오페라단으로 하면 된다.

/완주=염재복 기자

뮤지컬 ‘김광석 Tribute’ 진안서 공연

29일 문화의 집서 김광석 대표 곡들 만날 수 있어

진안군은 오는 29일 오후 6시 30분에 문화의 집 마이홀에서 뮤지컬 ‘김광석 Tribute’ 공연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전북특별자치도가 문화 환경 취약지역 등에 대한 우선 지원을 통해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자 추진한 ‘2024 문화가 있는 날-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 공모에 선정돼 개최된다.

진안군이 주최하고 진안문화원이 주관해 열리는 이번 첫 공연은 뮤지컬 ‘김광석 Tribute’로 음악을 사랑하는 주인공이 학창 시절부터 인생의 반을 함께해 온 네 명의 친구들과 남자가 살아온 평범한 인생을 이야기하는 뮤지컬 작품이다.

특히 공연 내내 ‘나의 노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먼지가 되어’, ‘서른 즈음에’ 등 대한민국 대표 싱어송라이터였던 김광석의 노래 곡을 라이브 피아노와 기타연주 등으로 감상할 수 있어 더욱 감동적인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연을 맡은 뮤지컬수업커니는 사회적 기업에 선정된 문화예술 전문 기업으로서 코레아 우리, 밤을 잊은 그대에게, The Leaders 등 다양한 뮤지컬 공연을 통해 관객들에게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상식 진안군 문화체육과장은 “평소 뮤지컬 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군민들이 뮤지컬 공연을 느껴볼 수 있는 작품으로, 찾아 주신 분들이 즐겁고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며 앞으로 더 다채로운 공연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 백인의 자화상’ 시민 추천 공모

전주문화재단, 6월 5일까지 진행... 전주 연고 원로 · 작고 예술인 발자취 재조명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오는 6월 5일까지 ‘2024 전주 백인의 자화상’ 사업의 기록대상 예술인 선정을 위한 시민 추천 공모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주 백인의 자화상 사업은 전주를 연고로 활약한 원로 · 작고 예술인을 기록하고, 이들의 예술적 성취를 재조명하기 위해 2012년 시작해 올해로 13년 차를 맞은 유서 깊은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재조명한 예술인은 총 84명이다.

이날 재단에 따르면 시민 추천 공모, 전문가 추천, 선정위원회 등 세 단계의 과정을 거쳐 올해의 기록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이후 채록 · 연구 조사 등을 통해 선정된 원로 · 작고 예술인들의 발자취를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채록 원고와 수집된 자료는 ‘2024 전주 예술사’라는 이름으로 한데 묶어 책으로 발간된다. 이와 함께 지역 예술사의 살아 있는 보고인 생존 예술인의 육성이 담긴 영상 기록, 기존 자료의 디지털화 등을 통해 디지털 아카이빙도 동시에 추진된다.

한편 이번엔 추진하는 시민 추천 공모는 시각, 공연, 문학, 영화, 대중예술 등 문화예술 전 분야에 해당하며, 전주가 기억해야 할 예술인 대상자를 추천하거나 예술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청양식은 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이메일(sebeen_h@naver.com)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여성정책연구소·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 협약

전북여성정책연구소(소장 유은경)는 22일 전북연구원 컨퍼런스홀에서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센터장 김보국)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도내 여성·가족, 인구문제와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개발 및 교육 등 공동 추진, △여성·가족, 인구·청년 관련 세미나 및 포럼 공동 수행, △협력사업에 필요한 각 기관의 정보 및 자료 공유·활용, △기타 각 기관의 우호 증진 및 지역사회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유은경 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여성·가족 연구 및 성평등 정책 개발에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자치도문화관광재단-몽골 우문고비 주대자병원 협약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지난 21일 몽골 우문고비 주(주지사 공석), 대자인병원(병원장 이병관)과 3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문고비 주’와의 협약을 통해 올해 하반기 예정인 몽골 한국관광로드쇼에 참가, 몽골 현지 네트워크 지속성을 확보하고, 또 대자인 병원과 협력해 몽골 지자체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몽골 현지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재단은 지난 3월 대자인병원과 함께 몽골

‘헨티 주’와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교류에 힘쓴 결과 ‘우문고비 주’와 업무협약 체결이라는 성과를 이뤘다.

앞서 헨티 주와는 지난 3월 업무협약 체결 이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및 체류 관광 진행 등 후속 사업을 준비 중이다. 체류 관광은 전북자치도 치유관광 거점지역(진안, 임실, 순창) 및 20개의 치유 관광지(전통문화, 미식, 한방 등)를 중심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또 외래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효과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향수체험 진행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은 6월 문화가 있는 날 플러스 문화행사로 향수체험 ‘오드퍼퓸 향수 만들기’를 오는 6월 1일 오후 1시와 4시 두 차례 열린공간 운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참가 희망자는 24~29일 국립전

주박물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회차당 20명씩 총 40명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날 행사는 ‘테라피 수업’과 ‘향수 만들기 체험’으로 이뤄진다. ‘테라피 수업’은 스트레스 지수 체크표를 사용해 자신의 스트레스 지수를 확인, 그에 맞는 향기를 시향해 자신에게 맞는 향기를 찾아나가는 과정을 배운다.

/장은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